



오른쪽 위부터 시계반대 방향으로 수영 자유선수, 배드민턴 안세영, 수영 황선우, 핸드볼 류은희.

# Paris, Party

### 프랑스 파리서 100년만에 펼쳐지는 지구촌 스포츠 향연 내일부터 '17일 열전'...러·벨라루스 빠진 205개국 참가

예술과 문화의 도시 프랑스의 수도 파리가 100년 만에 펼쳐지는 스포츠의 향연으로 지구촌의 중심에 다시 선다.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이 26일 오후 7시 30분(한국 시간 27일 오전 2시 30분) 파리 센강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수상 행진으로 17일간 열전의 막을 올린다.

육상 남자 높이뛰기의 우승 후보 이상혁과 여자 수영의 배드랑 김서영이 선상 개회식에서 공동 기수로 태극기를 펼치며 입장한다.

전 세계를 위협한 코로나19 종식된 후 열리는 파리 올림픽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이래 8년 만에 관중과 함께하는 최대 스포츠 잔치로 역사에 남을 예정이다.

파리시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1900년, 19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하는 하계 올림픽을 성대하게 준비 중이다.

대회 개막이 가까워질수록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져 폭염 우려가 많이 줄었다.

공식 개회식에 이를 앞서 파리 올림픽은 24일 남자 축구, 7인제 럭비 예선으로 대회를 시작한다.

25일에는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를 좌우할 남녀 양궁 랭킹 라운드도 이어지며, 대한민국 단체 구기 종목으로는 유일하게 파리 올림픽 무대를 밟은 여자 핸드볼도 이날 독일을 상대로 도전의 첫발을 뗀다.

'완전히 개방된 대회'를 표방한 파리 올림픽은 1

만500명의 참가 선수가 완벽한 남녀 성비 균형을 이룬 첫 대회가 될 예정이다.

원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등록된 206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IOC가 여러 사정으로 고국을 떠난 선수들을 위해 결성한 난민팀을 포함해 207개 팀이 하계 올림픽에 참가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나오지 않아 파리 올림픽에는 NOC 기준으로는 205개 팀만 참가한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도운 벨라루스의 선수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징계로 파리 올림픽에서 자국명은 물론 국기, 국가도 쓸 수 없는 개인 중립 자격선수(AIN)라는 소속으로 출전한다.

IOC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군대와 연계되지 않고,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 선수들만 출전 자격을 제한해 31명만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엘리트 스포츠의 최대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이번엔 21개 종목, 143명의 선수만 파견했다.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래 48년 만에 최소 인원이다.

대한체육회는 '소수 정예' 국가대표를 위해 파리 외곽 폰텐블로에 사전 훈련캠프와 금식센터를 아우른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을 12년 만에 조성하고 기적을 준비했다.

양궁과 펜싱에서 금메달 5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 순위 15위 이내를 목표로 내건 대한민국은 현재 수

영, 육상, 태권도, 유도, 배드민턴 등 다른 종목에서도 힘을 보태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불타 있다.

미국 데이터 업체인 그레이노트는 우리나라가 금메달 9개를 획득해 종합 순위 10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0 도쿄 올림픽에 불참한 탓에 IOC의 징계를 받아 8년 만에 하계 올림픽에 복귀한 북한은 7개 종목에 16명의 선수를 보냈다.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32개 종목에서 329개의 금메달을 놓고 우정의 한판 대결을 벌인다.

거의 전 종목에서 고른 기량을 확보한 초강대국 미국이 중국을 따돌리고 금메달 40개 가까이 따내 종합 순위 1위에 오르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림픽 참가 선수를 대상으로 선거 운동에 나선 골프 여자 박인비의 IOC 선수위원 당락은 8월 7일 결정된다.

80억명을 돌파한 지구인들은 파리 올림픽 선상 수상 행진을 두고 개최국의 예술적 역량을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는 올림픽 개회식의 새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그랑 팔레, 베르사유 궁전, 파리의 상징 에펠탑과 트로카데로 광장 등 역사적인 건축물과 상징성이 큰 유적지를 경기장으로 탈바꿈한 프랑스의 창의력이 더해져 스포츠와 예술의 앙상블이 선사할 색다른 재미도 이번 대회의 흥밋거리다.

오는 8월 11일 차기 로스앤젤레스 대회를 기약하며 성화가 꺼질 때까지 지구촌은 파리 올림픽이 써 내려갈 감동과 환희의 서사시에 흠뻑 빠져든다.

/연합뉴스

## 선상 개회식... 낭만의 센강

### 오스테르리츠 다리부터 6km 달려 에펠탑 인근 트로카데로 광장 도착

27일(한국시간) 막을 올리는 2024 파리 올림픽은 역대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경기장이 아닌 곳에서 개회식을 치른다.

어느 올림픽에서든 개회식의 하이라이트는 선수단 입장과 성화 점화다.

대부분 대회가 성화 점화에 대해서는 직전까지 '급 비밀'에 부치기 때문에 이번 파리 올림픽 성화 점화가 얼마나 기발할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선수단 입장만큼 시작하기도 전에 온갖 전사가 뒤따르고 있다.

바로 선수들이 배를 타고 프랑스 파리의 상징과도 같은 센강 위를 유유히 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AP통신은 이를 두고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1896년 이후 128년이 지나 33번째 올림픽을 맞았지만 여전히 신선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선수단의 수상 및 선상 행진은 프랑스 파리의 식물원 근처 오스테르리츠 다리를 출발해 에펠탑 인근 트로카데로 광장까지 6km 구간에서 열린다.

해당 구간에는 강의 양옆으로 노트르담 대성당과 파리 시청 건물,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몽코르도 광장, 그랑 팔레 등 프랑스의 명소들을 두루 지나 에펠탑 인근에 도달하는 코스로 구성됐다.

이를 직접 지켜보게 될 관중 수도 역대 올림픽 개회식과 비교하기 어렵다.

웬만한 개회식 경기장이라고 해도 최대 10만명을 넘기기 어렵지만 센강을 따라 6km 구간에서 진행되는 이번 개회식 선수단 입장은 30만명이 넘는



삼성전자가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방송서비스와 협력해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과 28일부터 시작되는 오토 경기 생중계에 '갤럭시 S24 울트라'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센강의 보트에 '갤럭시 S24 울트라 <빨간 원안>'가 설치된 모습.

인원이 직접 관람할 수 있다.

10만명은 강변에 미리 설치된 관중석 등에서 유료 개회식을 지켜보게 되고, 나머지 22만명은 강주변에서 자유롭게 선수단 입장에 환호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 대형 스크린이 강변 곳곳에 설치되며, 배 안에도 카메라가 준비돼 선수들의 표정과 반응 등을 생생히 보여줄 계획이다.

프랑스는 개회식 준비를 위해 18일부터 센강 구간 주변을 통제해 인근 거주민 또는 기업 등 관계자 등 일부에만 통행증을 발급하는 등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개회식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후 7시 30분(한국 시간 27일 오전 2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다.

오후 9시 30분을 지나 어두워지는 최근 프랑스 파리 일몰 시각을 고려하면 선수단 입장이 끝날 때쯤 야외 조명의 위력이 더해지며 축제 분위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수단 입장 순서는 1896년 제1회 근대 올림픽 개최국인 그리스와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야니스 아데토쿰보를 기수로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되며 난민팀이 그 뒤를 잇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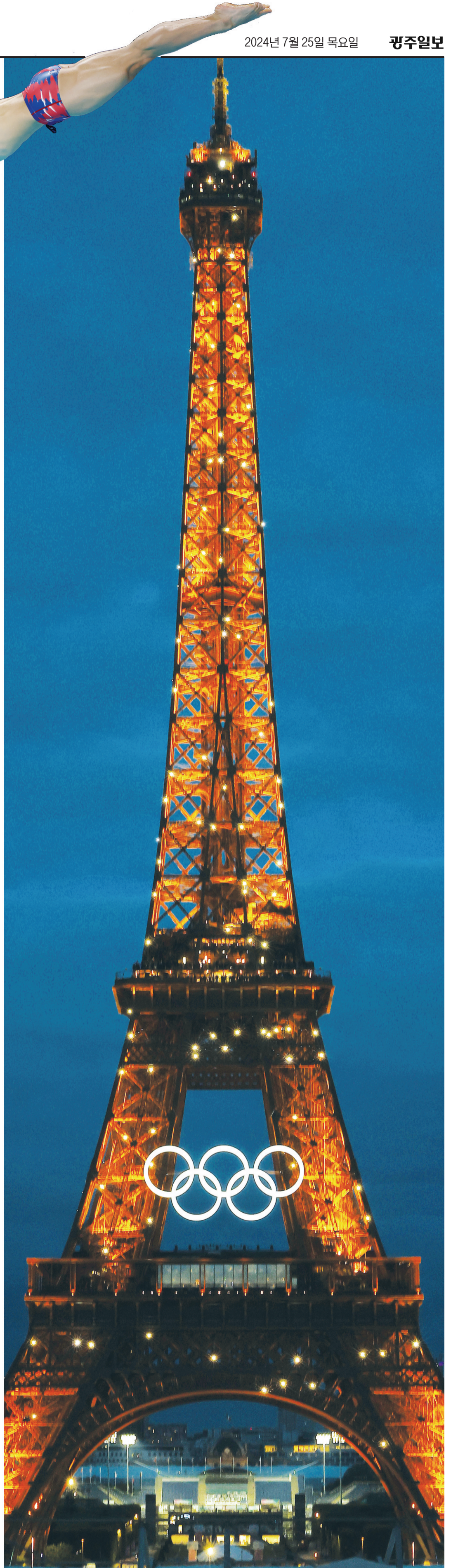
이후로는 프랑스 알파벳 순서에 따라 나라별 입장이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프랑스어 표기가 알파벳 'C'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상혁(육상)과 김서영(수영)이 기수를 맡아 전체 206개 참가국 중 비교적 앞 순서에 입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미는 개최국 프랑스가 장식한다.

센강을 가로지르는 장관이 펼쳐질 이번 올림픽 개회식의 변수는 역시 날씨와 안전이다.

약 120명의 각국 지도자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인 만큼 테러 등에 대한 보안 역시 매우 중요하다.

센강 주변과 파리 시내에 4만5000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되고, 파리 공항 등 반경 150km 상공을 오후 7시부터 통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4 파리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둔 24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에펠탑의 오륜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연합뉴스